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.

2009년에 나온 詩集의 화려한 부활

왁자지껄 이 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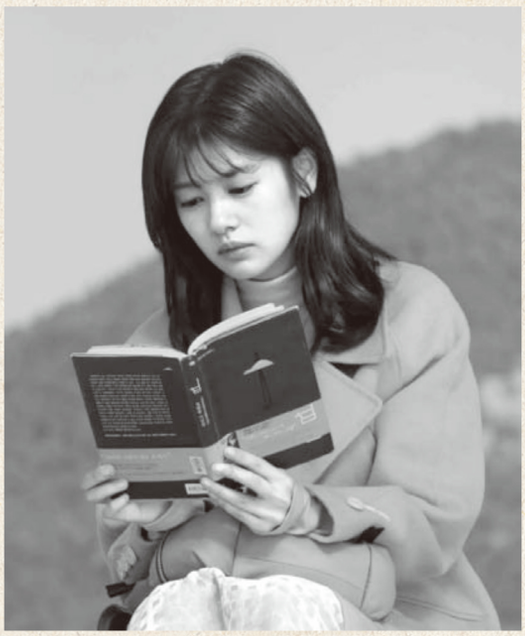
정현종 시인 시선집 '섬'
'이번 생은 처음이라' 나오며 인기
방송 이후 1만2000부 추가 인쇄



팔순을 코앞에 둔 시인 정현종(78·사진)이 8년 전 낸 시선집 '섬'이 뒤늦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. 지난주 초 젊은이들이 즐겨 본다는 TV 드라마 '이번 생은 처음이라'에서 주인공이 정현종 시인의 시선집 '섬'(열림원)을 펼쳐 시 '방문객'을 줄줄 읽는 장면이 나간 뒤부터다.

이 시집은 2009년 초판 3000부를 찍고 2015년 2000부를 더 찍은 뒤 잠잠한 상태였다. 열림원 출판사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에 어리둥절했다가 지난주 4000부를 부랴부랴 찍었다. 주문이 이어지자 이번 주에 3000부를 더 찍었고, 다음 주에 5000부를 추가 제작하기로 했다. 5000부에 멈췄던 시집이 드라마 방영 이후 1만2000부를 더 찍는 셈이다. 드라마 제작사가 출판사나 시인에게 알리지도 않았기에 출판사가 돈을 낸 간접광고 '특수(特需)'도 아니다.

정현종 시인의 시 '방문객'은 '사람이 온다는 건/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/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'며 시작한다. 지난 2011년 5월 교보문고 광화문 글판에 등장해 눈길을 끈 적도 있다. 이 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야말로 우주적 사건이라고 노래한다. '부서지기 쉬운/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/ 마음이 오는 것이다/ 그 갈피를/ 아마 바람은 더 듬어볼 수 있을/ 마음'이라고 한 뒤 '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/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'고 한다. 시인은 '타인을 환대하라'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, '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'이라고 소박한 바람을 드러내 더 큰 울림을 낳는다. 시집 '섬'은 정현종 시인의 대표 시선집으로, 시인이 직접 그린 삽화도 실었다.



tvN
배우 정소민이 출연 중인 드라마 '이번 생은 처음이라'에서 정현종 시인의 시집 '섬'을 읽는 장면

박해현 문학전문기자

– 조선일보 2017년 11월 24일



이 기사를 3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.



이 기사의 색칠된 부분을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